

소설에 나타난 사랑공간 용어의 종류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rang space Terminology it's Kinds and Meaning Described in the Korean novel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과
부교수 오혜경

Dept. of Housing, Family and Child Studies,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 : Oh, Hye-Ky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연구의 방법	V. 결론 및 제언
III. 사랑공간 및 용어에 관한 문헌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Sarang is a man's living space or quarter for the heir and his eldest son who would succeed and a hosting place for male visi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Sarang space terminology described in the 17 Korean novels and find its meaning by comprehending whole paragraph.

The major findings were summerized as follows;

1. Among the Sarang space terminology, Sarang meant either 'Sarangchae' or 'Sarangbang'. Its exact meaning could be understood by comprehending whole paragraph.
2. Regarding to the size of Sarang space terminology, there were two kinds. One was clearly quantified terminology such as 'two kans Sarangbang' and 'One and half kans Sarang'. The other was vaguely quantified terminology such as 'large Sarang' and 'small Sarang'.
3. Regarding to the location of Sarang space terminology, 'upper Sarang and lower Sarang', 'inner Sarang and outer Sarang', 'fore Sarang and back Sarang' were found to be used.
4. Regarding to the user of Sarang space terminology, it was for male mainly. However since 1930, some of female were also described as a user in the Korean nove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인의 주택은 한국의 산하를 포함한 주변 환

경과 한국인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상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어 졌으며 이는 오랜세월 계속된 다양한 외세의 침입과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 오랜 역사의 흐름속에서 현재 우리의

주택을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기는 조선 중기로 유교적 가치관이 생활을 지배한 이후부터이다. 우리의 조상은 유교를 받아들여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였고 그중에서도 남녀유별의 관념은 전통주택에 사랑관련 공간을 분리하여 발전시켰다.

사랑공간은 조선초의 기록에도 발견되나 그 기능과 표기가 변화되었고 조선후기 전통 한옥의 확립시기인 1800년 중반으로부터 한옥의 건설이 중단되어졌던 1960년대까지(유영희, 1994) 지속되었던 공간으로, 안방이나 건넌방들의 용어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음에 비해 그 존립시기가 비교적 짧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존립시기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의 사랑공간의 분화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건축학 분야와 주거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주로 조선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내외부 공간의 구조나 물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주남철, 1990; 신영훈, 1988; 문홍길, 1982; 장보웅, 1981; 조용훈, 1984; 김선재, 1987)들이 주를 이루었고 주거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내지는 주생활의 변화와 공간 사용의 상관관계를 거주인과의 면접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연구(홍형욱, 1986; 박선희, 1991; 유영희, 1994) 등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하나의 공간을 주제로 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최근에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보면 주택의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방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안방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용어의 출현빈도도 시대에 관여하지 않고 출현하고 있음에 비해 사랑방의 용어는 1950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서귀숙 외, 1998). 이제 사랑공간은 우리의 주변에서 건축되지도 않고 또 용어의 사용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사라져 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랑공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문헌상에 나타난 사랑공간은 물론 소설속의 옛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불리워졌

던 사랑공간 용어의 종류와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 과거의 한 일면을 정리해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공간용어의 성립 및 체계확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문학작품, 그중에서도 소설속에 등장하는 주거공간 용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신화경 외, 1998; 서귀숙 외 1998)의 후속으로 사랑공간 용어를 발췌하여 그 종류를 분류하고 관련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장을 해석한 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에 나타난 사랑공간 및 용어는 어떠한가?
- (2) 조사된 사랑공간 용어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3) 조사된 사랑공간 용어의 규모별 종류와 의미는 어떠한가?
- (4) 조사된 사랑공간 용어의 위치별 종류와 의미는 어떠한가?
- (5) 조사된 사랑공간 용어의 사용자별 종류와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의 방법

1. 소설의 선정 및 관련문장의 추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소설은 총 64개로 <표 1> 이들 소설은 우선 국문학자의 자문(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외곤 교수,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김현주 교수)을 통해 공간에 관한 단어와 실내용어가 가능한 많이 포함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소설의 배경연도와 출판연도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보았다. 시대별 구분은 우선 1900년 이전과 1900년 이후로 나누고 1900년 이후는 본격적인 개량한옥의 보급시기인 193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1900~1930 그리고 1930~1950년으로 구분하였으

<표 1> 조사한 소설의 배경시대와 제목

배경시대	문학작품의 제목
1900년 이전	춘향가, 흥부전, 임궫정
1900~1930년 이전	대하, 귀의 성, 삼대(상·하), 무정, 화수분, 고향, 흙, 배따라기, 행랑자식, 흥가, 토지, 만세전
1930~1950년 이전	허물어진 환상, 토지, 창랑정기, 경영, 인간사, 맥, 소, 감자, 별을 켜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1950~1960년 이전	애미, 비오는 날, 월훈, 장마, 관촌수필, 난리 그 뒤, 남풍, 미망, 고무신, 머루, 수련, 은넷골 이야기, 메아리, 화산대이, 오지에서 온 편지, 어린 상록수, 태양의 유산, 언덕을 형하여, 장씨일가, 흰종이 수염, 남한산성, 노을, 전횡단인보기
1960~1970년 이전	노을, 젊은 느티나무, 투기, 이브의 변신,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아홉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어도, 흑산도, 껌뻌만 리
1970~1980년 이전	노을, 젊은 느티나무, 장식조네 사람들, 우묵배미의 사랑,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 지상의 방 한칸
1980년 이후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 떠 있는 망루, 목마른 계절, 모든 벽은 문이다, 외딴 방, 그림자외출

<표 2> 사랑관련 문장이 추출된 소설의 분류

시대구분 작품명		1900이전	1900-1930	1930-1950	1950-1960	1960-1970	1970-1980	1980이후
		1	흥부전	●○♣				
2	임궫정	●○♣						
3	대하		●○♣					
4	귀의 성		●○♣					
5	삼대(상,하)		●○♣					
6	무정		●○♣					
7	흙		○	●♣				
8	토지		○	○		●★		●
9	만세전		●○♥					
10	창랑정기			●○♣				
11	소			●○♣				
12	사랑손님과 어머니			●○♣				
13	비오는날				●○♣			
14	장마				○♥		●	
15	관촌수필				○		●♣	
16	남풍				○♣	●		
17	노을				○♣		○●	

분류범주: 출판년도● 배경년도○ 대하★ 장편♣ 중편♥ 단편♠ 출판년도 불분명○

며 1950년 이후는 서양문물이 들어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다는 견해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신화경 외 1998). 그 결과 각 시대에 해당되는 소설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추가로

소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소설의 길이, 즉 대하, 장편, 중편, 단편의 선정에도 될수 있으면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소설을 읽어가면서 하나의 소설마

다 사랑용어¹⁾를 추출하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 앞뒤의 문장을 함께 추출하여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사랑공간은 17개의 소설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추출된 내용의 분석방법

정리한 용어 및 관련문장은 독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소설을 독해하는데는 첫째, 소설에 언급된 단어 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둘째, 문장의 단락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셋째 작품수준에서 해석하는 법을 들 수 있다(서귀숙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사랑방의 종류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소설에 언급된 단어수준과 주로 문장의 단락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소설은 몇 개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 전체를 위해 상호 연결되고 정리되어 집합된 문장상태를 이루며 문장에는 공간을 표현하는 용어가 들어 있고 그 주변 문장에는 그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또한 들어 있다. 따라서 사랑공간에 관한 용어가 있는 전체문장을 읽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파악한 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여 공통된 내용으로 분류한 후 정리하였다.

III. 사랑공간 및 용어에 관한 문헌적 고찰

1. 사랑공간

현재 우리의 주변에 남아 있는 전통주택은 대부분 17세기 전후에 세워졌으며 이 시기는 조선조의 후반기로서 유교적 가치관이 확립된 후였다(김광인, 1994). 조선이 개국하자 국시로 삼은 유교는 정치는 물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규범원리로서 삼강오륜이 삶의 기본 개념이었다. 삼강오륜 사상은 사회적 지위 뿐 만 아니라 상속, 활동범위, 교육, 가족내 지위 등에서 차등을 두게 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남녀간의 지위차등과 내외사상등을 불러와 여자는 중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부부 별침을

명하게 되었다(주남철, 1992).

한편 가족제도를 보면, 대가족 제도로서 3세대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한울타리 안에서 기거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질서 확립 때문에 강력한 가부장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남녀유별과 가부장권의 상징은 결국 사랑(舍廊)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랑은 가문계승의 직접 참여자인 가부장과 장자를 위한 생활공간이면서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며 가계계승을 위한 수련장이었다(홍형욱, 1992). 사랑은 조선 전반기만 해도 사랑(斜廊)이라고 불렀으며 집 곁에 지은 문간방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반기에 이르러 사대부 주택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사랑채가 별개의 채로서 위용을 갖추면서 한자 표기도 달라지게 되었다. 사랑채에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을 위한 큰 사랑방, 장자를 위한 작은 사랑방, 대청, 누마루, 침방, 서고 혹은 독서실이 부속되어 있었다(박영순 외, 1998).

한편 사랑채는 주택에 따라 사랑채, 안사랑채, 중사랑채, 바깥사랑채, 새사랑채 등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박선희, 1991). 규모가 큰 상류주택에는 보통 3세대 이상이 한울타리에서 기거하게 되므로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을 위한 사랑공간이 필요하므로 생겨난 채들이다. 이렇게 독립된 사랑채를 따로 소유할 수 없는 서민이나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는 사랑방만을 소유하게 된다. 즉, 마당을 가로 질러서 사랑방은 바깥쪽에 안방은 안쪽에 위치하며(홍형욱, 1985) 초가삼간이라도 한 칸은 부엌으로 나머지 두 칸은 각각 내실과 사랑으로 분리시켜 돌아 앉혀 놓는다(박선희, 1991). 사랑방은 주인의 일상 거처실로 서민주택에서는 온돌 흠바닥 위에 삿자리를 깔고 여유가 있어야 문갑 한 쌍이 놓일 정도로 소박하였다. 상류주택에서는 주인

1) 사랑관련 용어에는 사랑, 사랑채, 사랑방과 이에 관련된 ~사랑, ~사랑채, ~사랑방의 용어(예: 큰사랑, 안사랑채, 바깥사랑방), 그리고 사랑~(예: 사랑마루, 사랑건넌방)이 있으나 이중 사랑~는 사랑채에 속해있는 세부공간의 명칭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이 중앙관서에 출입하는 현직의 고위층이거나 지방에서는 문증을 대표하는 어른이므로 정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내객의 접대 및 문객들과의 대화 등을 위해 비교적 예의를 갖춘 가구와 서화 등으로 사랑방이 장식되었으나 화려하지는 않았다(주남철, 1992). 이러한 사랑방은 주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랑채는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세대간에 사랑방을 따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때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을 두었다. 이는 뒷사랑방, 아랫사랑방 또는 안사랑방, 바깥사랑방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2. 사랑공간 용어

이상의 문헌에 나타난 사랑공간의 용어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사랑, 사랑채, 사랑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사랑방과 사랑채는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이의 개념은 분명히 규정지워진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채와 사랑방을 넘나드는 개념의 용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랑은 문간방으로 시작되어 사랑채로 옮겨 감으로서 한자 표기가 달라지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학자들의 용어 사용에서도 그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중류가옥에서 부모가 안방을 만아들에게 내어주고 사랑으로 물러 났다가도 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 그 방을 들췌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사랑채에서 다시 들어와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김광언, 1994)」에서 사랑은 뒤의 사랑채를 지칭하고 있다. 「가부장을 위해서는 큰사랑과 누마루인 운조루, 장자를 위해서는 사랑과 누마루인 귀래정, 은거하는 조부모를 위해서는 안사랑과 누마루인 석정정이 있는데...(홍형욱, 1992)」에서의 큰사랑, 사랑, 안사랑은 각각 큰 사랑방, 사랑방, 안사랑방을 지칭하고 있다. 「이 집의 사랑채는 몇 번의 증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락을 추려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바깥칸은 앞뒤칸이 모두 헛간인데..., 다음은 앞칸을 대청마루로 하고 뒤는 작은 사랑이 된다. 복판칸은 앞퇴에만 툇마루를 시설하고 들보간의 칸반은 큰 사랑방을 꾸몄다(김홍식, 1992)」에서의 작은 사랑

은 작은 사랑방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로 비추어볼 때, 사랑은 사랑방과 사랑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세부적인 공간 명칭도 큰 사랑은 큰 사랑채나 큰 사랑방을, 안사랑은 안사랑채나 안사랑방을, 앞사랑은 앞사랑채나 앞사랑방을 지칭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큰 사랑이 큰 사랑채를 지칭하는 것인지 큰사랑방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문장의 내용을 해석해야 알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랑공간 용어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소설에 나타난 사랑용어는 총 457개였으며 이를 사랑, 사랑채, 사랑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관련 공간용어의 시대별 특성을 보면, 1900년 이전이 199개로 가장 많고 그 후 점점 줄어들다가 1960년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선정된 소설의 양과 그 내용이 시대별로 고루 분포되지 않았으므로 숫자적으로 논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긴 하겠으나 한국에서 사랑채나 사랑방의 존재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시기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사랑용어의 빈도수를 보면 사랑용어가 391개, 사랑채 관련 용어가 16개, 사랑방 관련 용어가 50개였다. 이중 사랑채나 사랑방보다는 사랑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랑의 용어가 큰 규모의 주택에서의 사랑채나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의 사랑방으로 명칭지어지기 이전부터 통용되어오던 용어였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앞장에서의 고찰결과 사랑이 사랑채와 사랑방을 넘나드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이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들면 「사랑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쪽문 안에 귀련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서서 들어와 보는 중에(임격정

〈표 3〉

분류	명칭	1900이전	1901-1930	1931-1950	1951-1960	1961-1970	1971-1980	1980-이후	계
사 랑	사 랑	148	133	47	7				335
	큰 사 랑	20	6	3	1				31
	작은 사 랑	5	8	1					14
	안 사 랑	1	2						3
	바깥사 랑	1	3						4
	위 사 랑			1					1
	아랫사 랑	1							1
사랑채	앞 사 랑	2							2
	사 랑 채	2	4	1	6				13
	큰 사 랑 채				2				2
사랑방	사 랑 안 채		1						1
	사 랑 방	16	19	6	4				45
	큰 사 랑 방	1	2						3
	앞 사 랑 방	1							1
계	바깥사랑방	1							1
	계	199	178	59	21				457

5권, p.105)», 「안방은 동쪽이구 건넌방은 서쪽이구 건넌방 모퉁이에 사랑에서 드나드는 일각문어...(임격정7권, p.176)」에서 쪽문이나 일각문은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는 작은 문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의 사랑은 사랑방이 아닌 사랑채를 의미하고 있다. 「사랑에 머물고 있는 홍씨의 모자를 뒤채로 옮기라는 분부가 내린 것이다(토지 2권, p.373)», 「몸채와 사랑은 여름 겨울 방학때면 대개 식구들이 내려왔고 비교적 길상이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게 보전이 되어 있었다(토지, 13권, p.373)」에서의 사랑은 뒤채나 몸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랑채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사랑이 사랑채가 아닌 사랑방의 의미로 쓰인 예를 보면 「작은 집 안방은 한온이가 사랑으로 쓰는 방이라 방치장이 재상의 사랑과 같아서(임격정 7권, p.92)», 「하룻밤 자던 집 안방이라 이것을 대장의 사랑겸 수령의 도회청으로 정하여...(임격정 10권, p.128)», 「귀녀와 삼월이는 사랑과 안방에 시중, 그리고 봉순이가 곁에서 잇기는 하나 서희도 돌 봐야 했기에 바깥일에는 참여를 못했고(토지 2권,

p.171)」가 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안방에 대비되는 사랑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랑문갑 열쇠 어디 있는지 아니?(삼대-하권, p.273)」에서는 사랑채에서 문갑을 두는 곳은 사랑방일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사랑은 사랑방일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고, 「대청에 앉아 사랑문을 쳐다보며 칭얼칭얼 어머니만 북아 대기 일췌었다(관촌수필, p.310)」 「사랑보다는 대청쪽이 시원하기 때문이다(남풍, p.240)」에서의 사랑은 대청공간과 대비되는 사랑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학자들 뿐 만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사랑은 사랑채나 사랑방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2. 사랑공간 용어의 종류와 의미

한국의 전통가족은 확대가족이면서 대가족이므로 가족의 수가 많고 따라서 주택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의 수가 많아야 했다. 또한 가부장제가 확립되어 있고 장자상속이 원칙이므로 방의 위계가 있고 가부장 내외와 장자내외를 위한 공간이 안채와

사랑채에 각각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거주용 공간은 용도에 의해 방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크기, 위치, 사용자에 따라 방의 명칭이 정해졌다(홍형욱, 1992). 이와같은 원칙은 사랑공간을 명칭지우는데도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랑공간 용어를 규모별, 위치별, 사용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규모별 사랑공간 용어

규모를 지칭하는 용어는 명확하게 그 크기 또는 면적을 표시하는 숫자적인 규모와 명확하지 못하지만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규모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확한 규모는 1900년 이전~1950년대까지의 소설에서 총 5번 언급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 전통 건축의 척도기준인 간(間)을 단위로 하고 있었다. 묘사의 방법을 보면 사랑의 규모를 설명하는 방법과 정확한 규모가 앞에 오고 뒤에 사랑을 붙여 용어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랑의 규모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안채가 스무간이요, 바깥채가 스무간이요, 사랑채가 또한 스무간, 거기다 곳간이며, 마구간이며 마루방이며...(홍부전, p.200)」에서는 비교적 상류계층 사랑채의 공간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사랑방은 간 반통 이 간이요, 방 앞에 반간너비 퇴가 있고(임격정 5권, p.119)」와 「대문이 한간, 행랑결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간, 안방이 한간...(홍, p.319)」에서는 서민계층 사랑방의 공간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석골 두령·시위들은 박연중이 큰집 이간 사랑방에서 자고...(임격정 10권, p.119)」 「그때까지 계동 우리집 간반 방 사랑 밖에 모르던 나에게 진기하기 짝이 없었다(창랑정기, p.9)」에서는 사랑방의 규모를 이간 사랑방, 또는 간반 방 사랑 등으로 용어화하고 있는데 그 크기는 각각 한간반, 두간으로 일반적인 사랑방의 규모가 한간 또는 두간이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규모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간이나 간반 즉 한간반 사랑방은 협소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으며 두간 정도가 되면 협소하다는 암시를 주고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랑방은 두간 정도가 규범이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불명확한 규모의 사랑관련 용어는 「큰~, 작은~」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큰~, 작은~」이란 규모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 큰 사랑방은 두간 규모의 것이 대부분이나 작은 사랑방은 단간크기가 보통으로 거의 두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김광언, 1994)고 하므로써 「큰」과 「작은」은 확실한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소설속에 묘사된 이들 용어중 「큰~」은 큰 사랑이 31번, 큰 사랑채가 2번, 큰 사랑방이 3번으로 총 36번 출현하였고 「작은~」에서는 작은 사랑만 14번 출현하고 있었다. 크다는 개념은 작다는 개념과 상대적인 규모로 크다는 공간의 묘사가 있으면 작다는 공간의 묘사도 따라 나오리라 예측했으나 소설에서는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공간만을 묘사하게 되므로 꼭 그렇지는 않았다. 즉, 큰 사랑에 상대적인 작은 사랑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나 큰 사랑채의 상대인 작은 사랑채나 큰 사랑방의 상대인 작은 사랑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문헌(김광언, 1994; 김홍식, 1992; 홍형욱, 1992)에 수록된 전통주택의 평면도와 비교해 보면 문헌에는 사랑채-중사랑채, 큰사랑채-중사랑채, 큰사랑방-작은사랑방, 사랑큰방-사랑작은방, 큰사랑방-중사랑방, 사랑방-중사랑방, 사랑방-작은사랑방 등이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에서는 큰사랑-작은사랑과 큰사랑채-작은사랑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큰사랑방-작은사랑방, 사랑큰방-사랑작은방의 대응관계는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소설에는 없던 「중~」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은 중간 개념으로 크고 작은의 중간크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중사랑채, 중사랑방이 그것이다. 이에 상대되는 공간으로는 큰 사랑채와 사랑채, 그리고 큰 사랑방과 사랑방이 쓰이고 있었다. 한편 소설속에서 큰 사랑, 작은 사랑이 함께 출현하는 문장을 보면 사랑의 위치 및 위계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뒤에 탕탕에 관을 쓴 양반 한 분이 큰사랑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사랑에서 나와서 나를 슬금슬금 바라보더니...(임격정 5권, p.231)」 「큰사랑에서 작은 사랑으로 건너오는데 열려진 중문안에 어른거리는

명희의 눈과 서의돈의 눈이 마주친다(토지6권, p.74)에서는 큰사랑과 작은 사랑이 단순히 건너편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나무를 지나면 바로 또 급한 언덕이요, 좌우에 작은 사랑이 있고 강으로 향한 정면 측대위에 서강대신이 거처하는 큰사랑이 있는 것이다(창랑정기, p.8)」에서는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이 자리잡은 위치의 위계관계가 확실히 묘사되고 있다.

한편 「작은 사랑에 형제들이 들어 앉아서 이야기 하는 동안에 큰 사랑서는 정현이가 부친을 보고 형의 일을 말하였다(임격정 3권, p.105)」에서는 큰 사랑의 사용자는 부친이고 작은 사랑의 사용자는 그의 아들로 사용자 간의 위계관계가 확연히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큰~, 작은~」의 용어는 단순히 크다, 작다의 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위치나 사용자의 집안내 서열에서도 차이가 나므로서 명확한 위계질서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위치별 사랑관련 용어

조사대상 소설에 나타난 사랑관련 공간중 위치를 지칭하는 용어는 「안-바깥», 「앞-뒤», 「위-아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용어는 하나의 공간만이 존재할 때, 즉 하나의 사랑채나 사랑방만 있을 때는 단순하게 그대로 지칭하게 되지만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나타나면 공간과 공간이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서 명칭지위지게 된 용어들이다. 그 출현 빈도수를 보면 사랑용어에서 뒷사랑이 1번, 아랫사랑이 1번, 안사랑이 3번, 바깥사랑이 4번, 앞사랑이 2번이었고 사랑채 용어에서 사랑안채가 1번 출현하였고 사랑방 용어에서는 바깥사랑방 1번, 앞사랑방 1번으로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관련문장을 제시하여 보면 먼저 「안~, 바깥~」의 용어가 한 문장에 나타난 예로 「열때마다 소리가 요란한 대문은 근태가 거처하는 바깥사랑 원편에 제법 소담하게 보인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안사랑은 대문 원편이다. 바깥사랑, 안사랑 하나가 대단한 집 규모 같지만 기와집은 아니었다(토지 7권, p.58)」가 있으며 여기에서 바깥사랑은 오른쪽에 안사랑은 원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안사랑은 은거한 조부모가 사용하는 공간이며 이와 상대적인 바깥사랑은 가부장이 사용하는 사랑을 일컫는다. 소설에 나타난 근태는 이 집의 가부장이므로 바깥사랑은 가부장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앞~, 뒤~」의 용어에서 뒤가 쓰여진 문장은 찾을 수 없었으며 「앞~」의 용어는 「“앞사랑에 들기신가 봅시다”하고 대답하였다. “앞사랑이 어디요?” “큰 사랑방을 앞사랑방이라고 한답니다.”(임격정 7권, p.273)」가 앞이 나타난 유일한 문장이었다.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택안에서는 하나의 공간의 명칭이 두가지로 불리워 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문간 가까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사랑이 있기 때문에 큰사랑과 앞사랑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사랑과 큰사랑방이 같은 공간을 일컫는다면 역시 사랑과 사랑방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아래~」를 지시하는 문장으로는 「이 동리에는 하수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위사랑으로 와계시게 되었다고요(사랑손님과 어머니, p.363)」와 「집안 동정을 살펴보니 큰사랑, 아랫사랑, 수청방에 모두 불이 켜졌고(임격정 2권, p.100)」로 조사대상 소설에서 위와 아래가 나타난 유일한 문장이었는데 뒤의 문장에서는 큰 사랑에 상대되는 공간으로 작은 사랑이 아닌 아랫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다. 위사랑은 가부장이 쓰고 아랫사랑은 아래사람인 자손이 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작은사랑과 동일한 공간이어서 이의 대응관계는 꼭 「앞~, 뒤~», 「위~, 아래~», 「안~, 바깥~」이 짝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위치에 따른 사랑공간의 명칭을 문헌(김광언, 1994; 김홍식, 1992; 홍형욱, 1992)에 수록된 전통주택의 평면도와 비교해 보면 문헌에는 안사랑채-바깥사랑채, 사랑채-안사랑채, 사랑채-아랫사랑채, 사랑채-새사랑채, 사랑채-사랑바깥채 등의 사랑채 관련 공간이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상대되는 공간명칭이 쓰인 곳은 안사랑채-바깥사랑채 뿐으로 대부분 사랑채가 기준이 되고 그 상대되는 명칭으로 안사랑채, 아래사랑채, 사랑바깥채, 새사랑채 등 용도와 기거자,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다.

사랑방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안사랑방-바깥사랑방, 옷사랑(방)-아랫사랑(방), 사랑옷방-사랑아랫방, 사랑방-안사랑방, 사랑방-사랑옷방, 사랑방-사랑뒷방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사랑방이 기준이 되면 안사랑방, 사랑옷방, 사랑뒷방 등이 그 상대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사랑방에서는 안사랑방-바깥사랑방, 옷사랑(방)-아랫사랑(방), 사랑옷방-사랑아랫방 등 상대되는 명칭이 사랑채 보다는 많이 쓰이고 있었다.

가부장이 쓰는 큰 또는 위사랑과 장자가 쓰는 작은 또는 아래사랑을 일컬음에 있어 사랑옷방-사랑아랫방이 11번, 옷사랑(방)-아랫사랑(방)이 4번 나옴에 비해 규모를 일컫는 「큰~, 작은~」은 3번 출현하므로써 위치를 일컫는 「위~, 아래~」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용자별 사랑공간 용어

사랑은 남성들의 전용 공간으로서 여성이 사랑채나 사랑방을 사용하였다는 예는 조사대상중 1930년 이전 배경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사랑에 머물고 있는 홍씨의 모자를 뒤채로 옮기라는 분부가 내린 것이다(토지 2권, p.323)」의 문장이 있는데 이는 잠시동안 머물렀을 뿐 사용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원칙은 193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예로 「그러니 어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사랑손님과 어머니, p.383)」에서는 여자인 어머니가 사랑에 못가므로 어린 주인공 여자아이를 사랑에 내보내려 하고 있고 「누님이 상종들고 나가구려, 요새세상에 내외 합니까?(사랑손님과 어머니, p.363)」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문장은 「방바닥을 쓸며 지나가는 치마자락, 보료에 가서 앉는다. 사랑방의 공간은 최서희의 무시무시한 힘의 팽창이었고 시간은 사멸되어가는 화석의 기나긴 길이었다(토지 7권, p.938)」에서는 남자의 전용공간인 사랑방을 여성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보다 강한 여성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아가씨 저

녁은 사랑으로 차려갈까요?(토지 13권, p.176)」에서는 여성이 사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사랑방의 사용에 있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여전히 예외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남성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확실한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그 예로 「“사랑으로 들어갈까?” “대감이 아니 계신때는 영의정 대감이 오셔도 사랑에 들이지 아니해요”(임격정 3권, p.140)」에서의 사랑은 주인만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확실하므로 사랑공간에 대한 명칭은 사용자의 이름이나 사용자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이름이 쓰인 문장은 13번 출현하였는데, 대표적 예를 보면 「조대현 사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공론이 있는 모양이었다(임격정 2권, p.48)」 「글베우는 아이들이 각기 집에 들어가고 수선한 덕수의 사랑이 조용해진다(임격정 2권, p.254)」 「걱정이 사랑에 모이었던 여러 두령들이 걱정을 응위하고 도회청으로 왔다(임격정 9권, p.91)」로 조대현, 덕수, 걱정이 사랑의 앞에 붙여 놓으므로써 사랑의 확실한 사용자를 명시하고 있다.

형제, 형님, 장인, 대감, 영감 등 사용자의 대명사가 쓰인 문장은 5번으로 「첫 새벽에 형제쓰는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서(임격정 2권, p.14)」 「부친을 모시고 있다가 최원정의 말을 듣고 그 형님의 사랑으로 내려와서(임격정 2권, p.33)」 「덕순이가 장인사랑으로 나가니 누비 처네를 덮고 누워있는 그 장인이 반갑게...(임격정 2권 p.43)」 「다른 상노들보다 자주 대감 사랑에를 드나드는 까닭으로...(임격정 3권, p.112)」 「영감 사랑방안 심부름을 지가 도맡아 하다시피 한답니다(임격정 10권, p.63)」였다. 이 역시 사랑의 사용자가 확실하므로 그 집안에서 불리는 사용자의 대명사를 사랑앞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용자별 사랑공간 명칭은 문헌이나 평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조사대상 소설중에서도 임격정에만 나타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설속에 표현된 사랑공간 용어를 추출하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 앞뒤의 문장을 독해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랑공간 중 사랑의 용어는 사랑채와 사랑방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으며 이의 의미상의 구별은 문장을 독해해야만 가능하다.

② 규모별 사랑공간 용어는 인간 사랑방, 간반 사랑 등 명확한 규모를 일컫는 용어와 「큰~, 작은~」등 불명확한 규모를 일컫는 용어가 있었으며 이때 「큰」과 「작은」의 의미는 규모의 차이는 물론 집안내에서의 서열과 위계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임을 소설에서도 확인하였다.

③ 위치별 사랑공간 용어는 「위~, 아래~, 「안~, 바깥~, 「앞~, 뒤~」가 추출되었으며 이중 「위~, 아래~, 「안~, 바깥~」은 용어상으로는 위치에 관계되고 있으나 실상제도는 사용자의 서열이 우선된 명칭이었고 「앞~, 뒤~」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④ 사용자별 사랑공간 용어는 1930년대 이후의 배경소설에서부터 사랑이 금녀의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사랑은 남성이 그 사용자라는 사실이 대부분의 소설에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해주는 보다 확실한 용어는 「조대현 사랑», 「대감 사랑」등으로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은 소설적인 표현이긴 하나 사랑앞에 남성 사용자의 이름 또는 집안내에서의 호칭이 붙을 정도로 그 사용자가 명확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론하에 몇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의 소설을 선정함에 있어 그 길이를 안배하고자 대하, 장편, 중편, 단편소설을 모두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중 대하소설이 가장 많은 자료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로 대하소설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②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시대별, 계층별로 사랑공간 및 용어의 변화를 고찰할 수 없었으나

보다 많은 자료를 조사한다면 시대별, 계층별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③ 본 연구는 사랑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외의 공간에도 각 공간이 지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 2) 김선재,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 3)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4)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 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5)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6) 박영순 외, 우리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 7) 서귀숙 외 4인,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권1, 1998, pp.49-61.
- 8) 서귀숙, 「言語による 建築的空間の表現に關する 基礎的 考察」, 京都工藝纖維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3.
- 10) 신화경 외 4인, 한국 주거공간 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권2호, 1998, pp.97-105.
- 11) 유영희, 도시한옥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12) 이중우, 체용사상에서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13) 장보용, 한국민가의 연구, 보진재, 1981.
- 14) 조용훈, 한국 도시 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15) 주남철, 이조말부터 1945년도 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지 14권 38호, 1970.
- 16)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2.
- 17) 홍형옥, 한국 주거사, 민음사, 1992.
- 18) 홍형옥,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